

04

찾이슈

구제역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10

농가를 찾아서

오원택 거성목장 대표

14

자조금 소식

2019년 한우자조금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

22

협회 소식

2019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26

한우 시장

2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Contents

2 0 1 9 . 0 3 v o l . 1 6 1

04

하이슈 ①
구제역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08

하이슈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업전망'

10

농가를 찾아서
오원택 거성목장 대표

12

방송에서 만난 한우
제대로 알고 만난 한우
맛있어진다! 우리 한우!

14

자조금 소식 ①
2019년 한우자조금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

16

자조금 소식 ②
한우자조금 사회공헌
한우농가 한우나눔

18

자조금 소식 ③
'한우자조금사업의 미래발전
방안 연구' 결과 발표

20

자조금 소식 ④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연구' 발표

21

자조금 소식 ⑤
신규 비즈링
런칭

22

협회 소식 ①
2019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24

아하 그렇군요
인플루언서를 만나다

25

건강 상담소
건강한 해외여행 위해
이것만은 꼭!

26

한우 시황
2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발행인 민경천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커피아회관 2층 홍보·유통부

연락처 Tel.02.522.3606 Fax.02.522.4314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기획·디자인 디자인신화 02.324.6852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함의 시작입니다

피어나고 터트리
쏟아지고 튀어나는
꿈틀대고 튀어오르는

소란한 봄의
재잘거림과 두근거림과 쿵쾅거림에
설렘과 소망이 충만합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밝음의 출발입니다.



시작한 봄에
한우농가 여러분의
분주한 손길에 바빠진 걸음에
충만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 여러분의
새봄 새 출발을 성원합니다.

따뜻한 봄이 시작됐습니다.
새 희망의 출발입니다.



구제역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축사소독·백신접종 등 철저히 무엇보다 축산농가 책임의식 필수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 소재의 젓소농장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내려졌던 이동제한이 28일만인 지난 2월 25일 해제됐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km 이내)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를 비롯해, 지자체, 농협,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방역관계자와 방역에 따른 불편에도 협조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인 만큼 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는 3월 말까지는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는 '축사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와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해달라'고 한 번 더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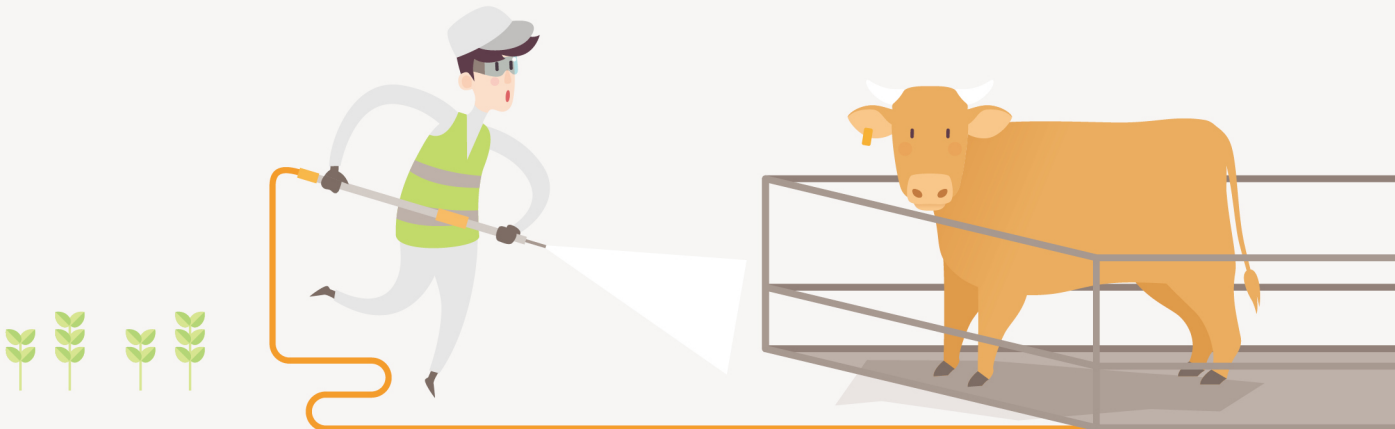
구제역 어떻게 퍼지나?

구제역(FMD:Foot and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 전염병으로, 병원 바이러스의 혈청형이 많아 방역이 매우 어렵

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 무리에서 한 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으로 급속도로 전염되는 등 전파력도 매우 강하다. 악성 구제역은 치사율이 무려 50%에 이른다. 그래서 감염 농장이나 해당 지역을 길게는 몇 달 동안 격리·방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는 가축에서 최대 14일, 분뇨 등 야외에서는 최대 6개월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과 A형 두 가지로, A형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번 경기도 안성 젓소농장 등에서 구제역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O형으로 확진됐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그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는데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분변 등의 접촉해 이뤄지는 직접접촉전파와 △감염지역 내 수의사·인공수정사 등의 사람과 사료차·출하차·집유차 등의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의 간접접촉전파로 확산된다. 아울러 공기(바람)로도 전파되는데, 육지에서는 60km, 바다에서는 25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전파될 수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육과 식육 부산물 등으로 퍼지기도 한다.



구제역 증상

1. 거품 섞인 침 흘림
2. 콧구멍 주변의 궤양
3. 유두에 생긴 백색의 수포와 수포 파열 후 가피(딱쟁이) 형성
4. 앞발굽 사이 수포 형성
5. 뒷발굽 사이 궤양과 가피
6. 잇몸 주변의 궤양 등

침 심하게 흘리고 물집 생겨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을 흘, 유방염, 우유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또 혀와 잇몸, 발굽 사이와 제관부,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는데, 이 물집이 터지면서 피부가 드러나 짓무르고 헐게 된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심근염에 의해 죽기도 하는데, 이때 심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병변을 호반심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환율은 높고 폐사율은 낮은 편이지만, 어린 송아지는 성우보다 폐사율이 높고 임신우의 유산을 유발하기도 한다.

매년 반복하는 구제역...농가 스트레스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 후 66년 만인 2000년에 경기도 파주와 충청남도 홍성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 젖소 약 2,000두가 살처분 되고,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됐다. 그후 구제역 미발생 국가로 인정받으려던 중 2002년에 경기도 안성·용인 등지, 충청북도 진천 등에서 다시 소와

돼지 구제역이 생겨 약 16만 두를 살처분했다.

이후 한동안 발생하지 않던 구제역이 다시 뉴스에 등장한 것은 2010년.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구제역 발생 소식이 이어졌는데, 이때 발생한 구제역은 '최악'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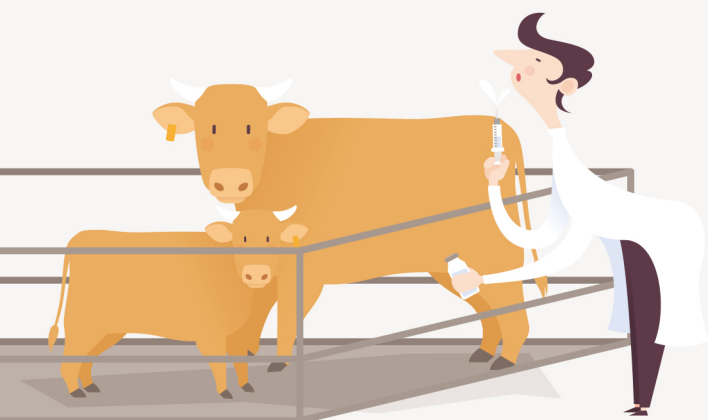
2014년 이후부터는 매해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물 백신' 논란 후 백신접종을 강화하면서 그 피해 규모는 그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이 만성화 되는 상황이라, 일부에서는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2017년에는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A형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다.

우리나라에 구제역 발생 소식이 매년 전해지면서, 축산농가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구제역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 실제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불안감이 높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까닭이다. 약 10년간 축산농가를 운영해 온 한 대표는 "우리 농장의 가족이 구제역에 걸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고, 살처분 관련 뉴스를 보면 무섭고 복잡한 심경이 돼 때로는 잠을 자기도 어렵다"고 토로하며 "지난 10년간 구제역만큼 어려운 것은 없었다"며 그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털어냈다.

백신접종·차단방역·소독 필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제역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백신접종이다.

백신은 구제역 발생 시 질병 확산을 억제하거나 예방을 위해 구제역 감수성 개체에 접종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 세계표준 연구소에서 추천한 백신이다.



구제역 국내 발생 일시

1934년

최초 구제역 발생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등

- 소 약 2,000두 살처분, 돼지고기
수출 중단

2002년 5월 ~6월

경기도 안성, 충북 진천 등

- 소 · 돼지 약 16만 두 살처분

2010년 1월~2011년 4월

경기 포천 · 연천 · 김포, 인천
강화, 충남 청양, 충북 청주,
경북 안동 · 예천 · 양양, 경상북도,
경기도 양주 · 연천 · 파주 · 가평,
강원도 춘천 · 홍천 · 횡성 · 양양 ·
화천 · 원주 등

*최악의 구제역으로 평가

전국 6,241개 농가에서 소 · 돼지
약 348만 두 살처분, 정부 예산
2조 7,383억 원 투입

2014년 7월~2015년 4월

충북 청주, 충주, 진천 보은 등

*물백신 논란과함께 백신 강화
돼지 약 17만 2,000두 살처분,
약 638 억 원 피해

2016년 1월~3월

전북 김제, 충남 홍성 등

- 소 구제역

2017년 2월

충북 보은, 전북 정읍,
경기도 연천 등

*국내 발생 없었던 A형 구제역 발생
소 약 871두

2018년 3월~4월

경기도 김포

- 돼지 4,435두 살처분

2019년 1월

경기 안성, 충북 충주

- 젖소 120두 · 한우 108두

우리나라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상시 접종하고 있으며, 연 2회 즉 4월과 10월에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상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유형의 항원은 항원뱅크에 일정량을 보관해 유사시에 신속히 백신을 제조·도입할 수 있도록 조처된 상황이다.

다만, 백신이 100%로 확실한 처방법은 아니란 점이다. 접종 시기와 접종 방법이 올바르게 않아서 등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해도 항체형성률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백신접종 방법을 잘 숙지하고 이를 잘 따라야 한다.

항체형성률은 농가 단위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가축을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농장 자체의 항체형성률이 높아도 개체 단위에서 허약한 소이거나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 전인 소, 면역력이 약한 소 등은 구제역에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적절한 백신의 취급·접종과 함께 축사 등 세척·소독, 차량과 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 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 위반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백신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불만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다. 올해 구제역 발생 후 백신접종이 긴급하게 이뤄지면서 전남 등에서는 그 부작용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이에 백신접종에 따른 부담을 지는 상황에서는 축산농가들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수 있는만큼 보상 기간을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현행에서는 백신접종 후 2주일 이내에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현 시세의 80%를 보상하고 있다.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 백신은 2개월에 한 번 접종하고 4주 후 2차 접종. 이후에는 4개월~7개월 간격으로 접종
- 백신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2℃~8℃의 냉장 상태로 운반·보관: 백신이 얼거나 오랫동안 외부에 방치하면 백신의 성분이 손상돼 효능 저하. 백신 열지 않도록 주의
- 예방 접종 쉽게 하려면 사온(15℃~25℃)에서 사용하며, 가급적 빨리(2~3시간 내) 사용
- 소, 사슴, 염소는 어깨 부위의 근육에 접종하고, 돼지는 목 부위, 귀 뒤 근육에 접종
- 접종할 때 주사바늘이 비스듬하면 지방층에 백신이 주입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직으로 접종. 지방층에 주입하면 이상육이 발생하고 항체형성이 미흡할 수 있다
- 주사는 1침 1두. 하나의 침으로 여러 마리 접종하면 주사침 오염으로 이상육 발생
- 접종한 동물은 반드시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사용해 표식. 백신접종 후 빠진 개체 없는지 확인 필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 소독·차단방역행동요령

- 축산농가는 구제역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입국 시 공항 소독 및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 금지 준수
- 사육 가족에 대한 임상 예찰 철저히
- 농장에 출입하는 가족, 분뇨, 동물 악품, 사료 등 축산 관련 모든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 농장 내외부인 출입 차단. 농장 방문자는 농장 출입 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출입 전 1회용 방역복, 장화, 장갑 등 축산 전용 의복으로 환복.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장비, 의복 등 소독 철저
- 농가는 축사내외부, 장비 등 주 1회 이상 소독
- 축사 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액은 2~3일에 한 번씩 교체.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
-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해 설치류 등의 접근 방지.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 쥐 야생동물 등은 질병 전파의 우려가 높으므로 축사 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차단방역. 쥐잡기 등 정기적 구서 작업 필요
- 폐사 축을 처리할 때는 농장 내에 방치하거나 개 등에게 먹이로 줘서는 안 되며, 매몰·소각 등으로 처리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시·군에 신고. 일과시간 이후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지 않는 등 방역교육 실시
- 축산농가에 구제역 증상이 없는지 매일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1588-9060/1588-40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의 높은 인식:

구제역 조기종료·피해 규모 감소에 기여

예방접종 철저히 해서 구제역 근절에 힘쓰시다.
설마 하는 안일한 마음가짐이 우리 축산을 망가뜨
립니다. 망가지는 데는 한순간이지만, 그걸 다시 복
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함을 잊
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석-

명절에도 구제역 극복에 열심히 노력하셨던 농장
사장님들 힘내세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
쟁이지만, 사장님들의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관리
로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파이팅!! -노미선-

구제역 발생은 축산농가 사양관리의 근본적인 변
화를 가져왔는데, 사양관리에서 질병관리가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백신접종, 차단방역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구제역 발생 후에는
관계 기관의 통제에 잘 따르면서, 구제역 조기종
료와 피해 확산 방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2017년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조기 종료될 수
있었던 데는 농가들의 높은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지난해 한우자조금 소식지
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신중수 보은군청 가축방역
팀장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한우농가
의 높은 책임의식이 구제역을 잡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월 한우자조금 소식지 웹진에는 구제역 관
련해 여러 댓글이 달렸다. ‘구제역 극복을 위해 애
쓰는 농가들에 대한 감사부터 한우농가 여러분 힘내
시라는 응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구제역 근절
에 힘쓰자는 당부까지.’ 구제역 예방과 극복을 위
한 한우농가 여러분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
었다.

구제역을 넘기 위한 축산농가들의 이러한 강한 열
정이 있기에, 조만간 대한민국이 구제역 없는 청
정 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업전망'

도축 마릿수 ↗ → 생산량 ↗

한우 도매가격 kg당 1만 7,021원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지난 1월 23일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2019 농업전망 대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한우 사양관리를 앞두고, 2019년 한우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어떤지 또 한우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살펴봤다.

2019년 주목할 외식 키워드는?…HMR·편도족

HMR은 2019년에 주요 외식 키워드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식산업정책학회에서는 2019년 외식산업 3대 트렌드 중 하나로 'HMR'을 꼽았는데, 나 홀로 소비 부상, 홈쇼핑에서 프리미엄 HMR 대거 출시, 편의점 도시락의 고급화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편도족 확산'에 주목했다. 편도족은 간편하고 편리한(Convenient) 식사와 편의점(CVS) 도시락 식사의 중의적 의미로, 편의점 등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간편식으로 만족할 만한 식사를 하는 외식 소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HMR 시장의 확대에 따라 HMR의 원료로 활용되는 소고기 등의 원료육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2019년 소비자의 선택은?…국산소고기 구매 늘릴 것

2019년 국산소고기 구매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21.3%로 '줄이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수입소고기는 '늘리겠다'는 응답과 '줄이겠다'는 응답이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고기 소비를 늘리려는 이유로 국산과 수입소고기 간 가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3순위로 조사됐지만, 수입소고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국산소고기보다 가격이 낮아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단순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해 수입소고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우와 수입소고기 연관검색어를 조사한 결과, 한우는 '맛'과 함께 '긍정' 연관어가 많았다. 최근 TV 방송에서 한 연애

인이 한우 곱창을 먹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곱창에 대한 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등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등심과 같은 구이류, 명절 선물세트 등 한우에 대한 소비자 니즈(Needs)가 있기에 한우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소고기는 중립적인 연관어 노출이 많았지만, '만족하다', '선호하다' 등과 같이 긍정적인 연관어도 함께 나타났다. 또한, 수입소고기 연관어로 '맛있다', '맛있는' 등의 단어도 함께 노출됐다.

2019년 주목해야 할 변경 제도는?…소고기 등급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안)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시험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12월 27일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했다. 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표 참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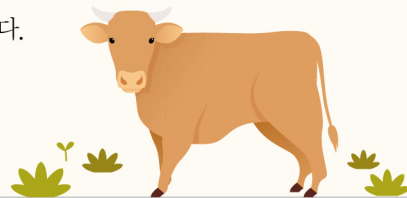
소고기 육질·육량 등급기준 주요 보완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육질 등급	- 근내지방도 1++등급(8·9), 1+등급(6·7) -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판정 후 육색·지방색 등을 평가해 1~3등급 하향조정	- 근내지방도 1++등급(7·8·9)·1+등급(6) - 근내지방도 외 육색·지방색·조직감 개별 평가 후 최저등급 적용
육량 등급	- 성별·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 적용(1종)	- 성별·품종별로 육량산식 적용(6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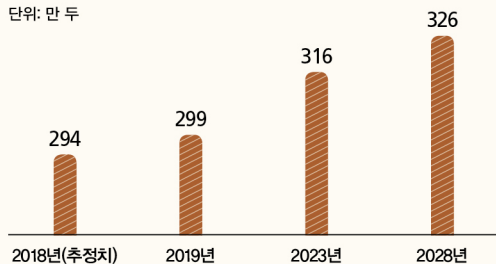
2019년 수급과 가격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9년 한우 사육 마릿수와 도축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소고기 생산량도 증가할 전망으로, 소고기 수입량 감소 예상에도 소고기 자급률은 2018년 36.4%(추정치)에서 올해 37.4%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육·공급 전망

단위: 만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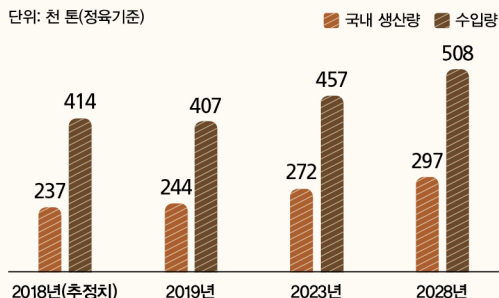


한우 사육 마릿수는 송아지 생산 마릿수 증가가 예상돼 전년 294만 두보다 1.8% 증가한 299만 두가 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사육 마릿수는 농가의 번식의향 유지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2023년 316만 두, 2028년 326만 두에 이를 전망이다.

한우 도축 마릿수는 2018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한우 가격이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암소 도축이 늘어나고, 거세우 출하대기 물량도 2018년보다 많아 수소 도축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전망

단위: 천 톤(정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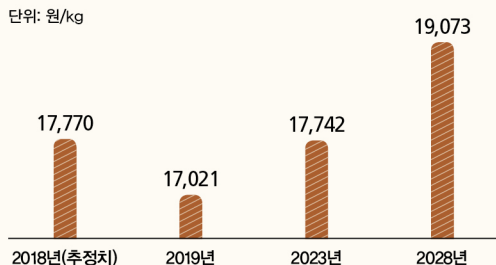


국산 소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24만 4,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사육과 도축 마릿수가 지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소고기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 2028년에는 29만 7,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소고기 수입량은 국내 가격 하락이 예상돼 지난해보다 1.6% 감소한 40만 7,000톤으로 전망된다. 간편식 시장의 소고기 수요와 수입육에 대한 소비 증가로 수입량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2020년 이후에도 소고기 수입은 관세율 하락,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전망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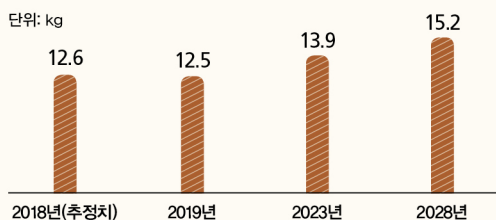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국내소고기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2018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kg)은 2018년보다 4.3% 하락한 1만 7,021원(764만 원/750kg 환산)으로 전망된다.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로 당분간 한우 도매가격은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약간의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이다. 이에 사육농가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 사육 마릿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1인당 소비량

단위: kg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수입량이 줄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수입량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 전체 1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12.5kg으로 전망된다.

거성

목장

오원택

대표



안전축산물 생산 위해 사양관리에 애정과 정성 다할 것

오원택 거성목장 대표가 한우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다. 오 대표와 마주하는 한우의 입매엔 반가움이 가득하다. 지난 7년간 오 대표가 얼마나 큰 애정으로 거성목장의 한우를 돌봐왔는지가 충분히 그려진다.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 해발 650m, 그림 같은 풍경 위에 자리한 거성목장에는 이렇게 곰살가운 시선이 가득했다.

성실함으로 걸어온 시간

거성목장은 오원택 대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찾은 첫 직장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승낙이 떨어질 때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에 새벽 5시에 일어나 굽이진 산길을 올라 한우의 밤새 안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 대표의 의지와 성실함을 증명했다. “제 전공이 토목이고, 한우 사양관리 경험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일단 제 의지부터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런 성실한 일상은 이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거성목장이 있는 곳은 전국 뉴스에 날 정도로 겨울 추위가 대단한 곳인데, 동상에 걸릴지언정 겨울에도 성실한 일상은 변함이 없다. “농장을 비우면

단번에 표가 나요. 또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한우를 더 잘 키우기 위해, 오 대표는 실력을 채우는 데도 성실히 임했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해지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오 대표에게 소줄 잡는 법, 사료 주는 법, 아픈 한우를 알아보는 법 등 사양관리의 기본을 알려준 이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한우의 등을 긁어주는데, 한우가 정말 좋아해요. 아버지로부터 애정 있는 사양관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제 새끼를 돌보지 않는 어미 소를 대신해 직접 분유를 먹여 키워낸 꽃순이, 태풍이는 오 대표의 귀한 자식들이다.

오 대표의 사양관리 고민 해결에는 황성의 젊은 한우 농가들도 큰 힘이 됐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사양관리, 한우개량 등과 관련한 정보 교환부터 사적인 고민까지 나눕니다. 좋은 동료들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러오다

오 대표는 거성목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데도 성실히 임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의견차가 있었지만, 거성목장이 더 멀리 가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확신했기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그것을 실력으로 증명했다. 그 시간이 꼭 3년이 걸렸다. 당시까지 거성목장은 번식 위주의 경영방식이었다. “농장에 사육두수가 더 늘지 않고 정체됐어요. 농장을 더 키우려고 비육을 시작했습니다. 비육우 출하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수입은 없고 하지만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정말 쉽지 않았어요. 조금 중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지 버텨냈습니다.” 오 대표의 자구책은 옥수수 재배, 사료비 절감 차원이었다. “덕분에 사료와 건초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오 대표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한우를 출하하던 날, 오 대표는 그날의 기분을 ‘날아갈 것 같았다’라고 회고했다. “그동안의 경영 부담을 털어내는 날이었으니까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3년 전보다 한우 가격도 올라 있었다고. 그 시간에 한우개량에 매진한 결과 거성목장 한우의 자질은 많이 향상돼 있었다. “매년 도체중과 등급이 높아지고 있어서 보람이 큼니다.” 오 대표는 옥수수 농사에서도 수완을 발휘, 거성목장 한우에게 옥수수를 풍족하게 먹이고도 남을 정도이다. 이는 거성목장의 새로운 수입원이 됐다. 거성목장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면 마냥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책임감이 더 막중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경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경사도 겹쳤다. 오 대표를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것. 지난해부터는 ‘딸바보’가 됐다.

애정 갖고 정성 다해

“거성목장에서 자란 한우는 좋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오 대표는 시설을 보강하는 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결과 거성목장 축사는 한우가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났다. “시설이 좋아지면 사양관리에도 힘이 될 들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한우를 쓰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오 대표는 올해 하반기에 축사신축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분만시설과 송아지 놀이방을 따로 만들고, 사료를 먹는 공간과 물과 건초를 먹는 구간을 구분하는 등 한우 사육환경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오 대표는 ‘방목’에 대한 뜻도 밝혔다.

이렇게 오 대표가 한우 사육환경에 신경 쓰는 데는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겠다는 그의 신념과 관련이 깊다. “한우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철저한 사양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올봄에 한우식당도 열 계획인데, 이 역시 직접 기른 안전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겠다는 오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주변에서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항상 힘이 납니다. 이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그분들 나이가 됐을 때 후계농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어떤 파고에도 우리 한우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한우산업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죠. 이를 위해선 우리가 소비자의 니즈에 맞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애정을 갖고 더 정성을 다해 사양관리에 힘쓰겠습니다.” 🍌



제대로 알고 만난 한우 맛있어진다! 우리 한우!



1 SBS <본격연예 한밤>

2월 12일



한우 홍보대사 남궁민 씨와 소터뷰

이날 방송은 2019년 한우 홍보대사로 선정된 배우 남궁민 씨가 2019년 한우홍보 대사로 선정됐음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난 1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된 2019년 한우자조금 TV광고 촬영 현장 스케치 영상에는 남궁민 씨가 한우를 맛있게 먹으며 광고 촬영하는 모습, 한우 마스크트 등이 담겼는데, 이는 남궁민 씨와 한우의 만남을 알리기 충분했다. 이날 방송 인터뷰 제목은 '소터뷰'. 한우 부위별 특징·효능과 매칭시킨 부위별 맞춤 토크를 진행, 우리 한우가 맛도 좋지만 한우의 모든 부위가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

방송에서 남궁민 씨는 '활동량이 많은 앞다릿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목살' 등 한우 비인기 부위를 선택했는데, 이는 한우 비인기 부위의 소비촉진과 직결됐다.

방송 마지막에는 남궁민 씨가 리포터에서 한우선물세트를 증정하는 색다른 포퍼머스가 진행됐는데, '특급 선물 한우 선물, 한우 증정하는 한우 홍보대사 클래스' 등의 자막은 한우가 특급 선물임을 알리는 훈훈한 시간이었다.

2 SBS <모닝와이드>

2월 27일



우리가 몰랐던 한우! '한우를 알고 싶소?'

동요 얼룩송아지에 나오는 소가 한우란 사실을 아시나요? 이날은 한우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이는 시청자들에게 우리 한우의 우수한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데 기여했다.

방송에서는 우리 고유 품종인 한우가 황우만이 아니라 흑우, 철소, 백우 등 매우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일제강점기 수탈 대상이었던 한우에 대한 고찰도 이뤄졌다. 일본에서 유명한 타지마소, 미지마소가 사실은 한우를 개량해서 탄생한 것이란 방송 내용은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똑바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날 방송은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한우산업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민족산업임을 또 한우의 높은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일조했다. 한우가 2006년 문화관광부로부터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한우산업이 매우 소중한 자산을 한 번 더 알렸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탐낼 정도로 우수한 한우가 맛도 영양도 뛰어남을 소비자 인터뷰와 전문가 멘트로 증명, 한우의 소비촉진과도 연결됐다.

한우는 언제나 옳지만, 2월 방송에서 만난 한우는 더욱 옳았다. 한우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몰랐던 사실과 우리 한우의 우수한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바로 알린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우 홍보대사 남궁민 씨가 출연한 방송은 한우 부위별 특성을 알리며 한우 소비촉진에 도움이 됐고, 3.1절을 앞두고 진행한 PPL은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인 한우의 우수한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하는 데 일조했다.

3 MBC <구해줘!홍츠>
2월 5일



설 명절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예능 최초 부동산 버라이어티 MBC '구해줘! 홍츠'에 한우선물세트가 우승 상품으로 등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 후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우선물세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됐다. 방송에서는 '명절엔 역시 한우'란 자막을 노출, 우승의 순간에는 물론 명절에도 역시 우리 한우가 진리임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최근 이 프로그램은 정규 방송으로 편성됐다.

4 MBC <아이돌육상선수권대회>
2월 6일



명절마다 방영되는 MBC 설 특집 '아이돌육상선수권대회'에 올해는 한우선물세트가 등장, 주 시청 층인 10대 청소년들에게 우리 한우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신설 종목 우승팀에게 한우선물세트를 증정했는데, 우승의 품격 곧 한우선물세트의 품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됐다. 이날 방송 내용은 온라인 기사 등으로 2차 재생산, 이는 한우를 다시 한 번 더 알리는 데 도움이 됐다.

5 KBS 1TV <노래가 좋아>
2월 2일·9일·16일·23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노래 대결을 펼친 후 가장 화합된 모습을 보여준 팀에게 주는 하모니상 수상 팀에게 '한우선물세트'를 현물 협찬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방송되는데, 우승자들이 한우선물 세트를 받고 환호하는 모습을 매주 같은 시간에 반영하면서 한우의 긍정적 이미지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 역시 우승의 순간에는 한우선물세트가 진리임을 매주 소구하고 있다.



3월 한우자조금 TV·라디오 광고 스케줄

채널	편성표	요일 및 날짜	시간
KBS1	인간극장 前	월요일(4일·18일)	7:49
	노래가좋아 前	토요일(9일·16일·23일·30일)	10:29
	6시내고향 前	목요일(7일·14일·21일)	17:59
KBS2	주말연속극 前	일요일(3일)	19:54
	일일드라마 前	수요일(13일·27일)	19:49
	영화기좋다 前	토요일(2일·9일·16일·23일·30일)	10:19
	해피투게더_재 前	토요일(30일)	15:19
	KBS 앙코르 (재방프로그램) 前	화요일(12일·19일)	10:19
CBS 표준 FM	김한정의 뉴스쇼 2부 後	월요일~금요일(총 20회)	8:34

1

2019년 한우자조금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

한우자조금 사업규모 총 382억 7,594만 원

한우자조금 2019년 사업과 예산이 지난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예산 안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지만, '경쟁력 있는 생산 경쟁력 있는 소비'를 슬로건으로 진행될 2019년 한우자조금 사업 운용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2019년 자조금 예산 규모 약 383억 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승인한 '2019년 한우자조금 사업운용'을 살펴보면, 2019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규모는 총 382억 7,594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한우자조금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농가거출금 149억 9,900만 원 △정부지원금 94억 2,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38억 5,200만 원이다. 전년도 이월금은 수급안정적립금 100억 원, 예비비 24억 6,900만 원, 불용액 13억 8,3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사업규모에 맞춘 **한우자조금 사업별 예산은** △소비홍보 75억 3,545만 원 △유통구조 31억 2,533만 원 △교육 및 정보제공 66억 9,331만 원 △조사연구 7억 5,776만 원 △수급안정 92억 1,765만 원 △운영비 17억 8,329만 원 △기타비용 10억 5,520만 원 △수급안정적립금 65억 원 △예비비 16억 797만 원이다. <그래프 참고>

2019년 한우자조금 세입 · 세출



- 농가거출금
149억 9,900만 원
- 전년도 이월금
138억 5,200만 원
(수급안정적립금, 예비비 등)
- 정부지원금
94억 2,500만 원



- 소비홍보
75억 3,545만 원
- 운영비
17억 8,329만 원
- 유통구조
31억 2,533만 원
- 기타비용
10억 5,520만 원
- 교육 및 정보제공
66억 9,331만 원
- 수급안정적립금
65억 원
- 조사연구
7억 5,776만 원
- 예비비
16억 797만 원
- 수급안정
92억 1,765만 원

구제역 등 질병 관리 예산 확대 편성

농림축산식품에서 조정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부문 예산 약 3억 3,678만 원 증액이다.

한우 질병방역과 예방지원, OEM사료생산지원,

농림축산식품일자리박람회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추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MD 등 질병 예방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해 방역 물품 및 면역증강제 등을 한우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자 주도에 의한 고품질 사료비를 절감하는 OEM 사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료 공급 체계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지원

예산도 1억 8,000만 원 신설됐다.

수급안정 사업부문의 한우농가 스스로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당초 4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운영관리비 일부가 축소됐다.

운영관리비와 홍보비 등에서도 일부 조정이 있었다.

유통구조 사업부문 중 올해 가격적으로 예산을 늘린 '대한민국이한우먹는날사업' 예산은 2018년 대비 보다

약 10억 원(124.6%) 증액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이한우먹는날'과 연계한 전국 동시다발적 한우숯불구이 축제를 개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전국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됐다.

조사연구 사업부문 중 올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 한우정책연구소 예산을 인력 축소와 인건비 조정 등으로 원안 축소했다.

'경쟁력 있는 생산·경쟁력 있는 소비'

한우자조금은 2019년 한우생산과 수급전망, 한우소비 환경 전망 등을 바탕으로 2019년 사업목표 슬로건을 '경쟁력 있는 생산 경쟁력 있는 소비'로 정했다.

한우자조금 사업목표는 △수입육의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에 따른 대응 강화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한 농가 경영악화 방지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홍보 강화(품격과 가치 중심)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건강에 대한 가치 지속 홍보 △수출 안정화로 수출 시장 확대 등이다.

한우자조금 2019년 사업 부분별 추진 사항은 <박스>와 같다. 📁

2019년 한우자조금 사업 부분별 중점 추진방향



홍보부문

- 효율적인 TV 광고 운영으로 한우의 가치 홍보 및 소비촉진 유도
- 온라인 매체 활성화 및 영향력 강화에 대응한 온라인 홍보 강화
- 소비자 관심이 높은 TV·라디오 프로그램 협찬 및 제작지원 강화로 한우의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
- 신규 소비 확보를 위한 30~49세 대상 홍보 강화



유통부문

- 한우고기 수급여건에 따른 전략적 소비촉진 행사로 유통지배력 확대
-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 안정적인 한우고기 수출시장 확보 및 수출국 내 시장점유율 확대



교육 조사부문

- 교육 및 컨설팅으로 농가 자체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한우고기 우수성 발굴 연구 용역 실시
- 한우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수급안정

- 선제적 수급관리로 한우 생산과잉 방지



2

한우자조금 사회공헌 지역민과 함께 한 뜻깊은 한우나눔



한우자조금 사업 일환으로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한우산업의 따뜻함을 전하는 한우농가 한우나눔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에만 한우자조금 약 9억 원의 예산이 총 1,238개 기관에 1만 8,139kg의 한우고기를 전하는 데 활용됐다. 이러한 한우농가 한우나눔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와 시군지부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 한우나눔은 한우산업이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따뜻한 산업임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물론 지역민들에게 지역에서 생산하는 싱싱하고 우수한 한우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지역 한우 소비촉진도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 한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 각 지자체나 복지시설 등과 지역 내에서 나눔이 꼭 필요한 곳으로 한우가 직접 찾아가고 있는 것.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설명절에도 전국한우협회 각 도지회와 시군지부는 한우나눔에 적극 나서며 우리 이웃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지난겨울 전국에서 지역사회와 진행한 한우농가 나눔활동을 소개한다.

*지면상 도지회와 시군지부에서 가장 최근 실시한 나눔활동 위주로 소개했습니다.

경기도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이연목)와 남양주시지부(지회장 오호택)가 한우나눔 행사를 열고, 한우불고기 428kg(1,498만 원 상당)을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후원했다. 한우불고기는 노인 무료 급식소, 아동·장애인 생활 시설 등과 나눴다.

강원도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지회장 박영철)는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한우곰탕 4,000인분(1,6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한우곰탕은 강원도 내 소외계층 약 4,000명에 전달됐다.

충청북도

충청북도지회(지회장 박병남)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노인복지회관을 찾아 760명(340만 원 상당)과 떡국을 나눴다.

충청북도 시군지부 차원에서 한우고기 나눔활동도 전개했다. 기탁한 한우고기는 지역 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역 내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 연계했다.

△괴산군지부(지부장 김영덕) 1kg 107개(350만 원 상당)
△단양군지부(지부장 안재학) 1kg 91개(300만 원 상당)
△보은군지부(지부장 성제홍) 1kg 107개(350만 원 상당)
△영동군지부(지부장 김학동) 1kg 94개(300만 원 상당)
△옥천군지부(지부장 이완수) 1kg 107개(350만 원 상당)
△음성군지부(지부장 김명길) 1kg 107개(350만 원 상당)
△제천시지부(지부장 함인영) 1kg 125개(400만 원 상당)
△증평군지부(지부장 김은수) 1kg 91개(300만 원 상당)
△진천군지부(지부장 김홍식) 한우국밥 한우정육 36kg, 한우사골 잡뼈 20kg 등(270만 원 상당)
△청주시지부(지부장 이종범) 한우고기 125kg(400만 원 상당) △충주시지부(지부장 이상배) 한우고기 121kg(400만 원 상당) 등의 한우나눔으로 이웃들의 따뜻한 설 명절을 응원했다.

충청남도

대전충남도지회에서는 시군지부 차원에서 한우나눔 행사를 전개했다. △공주시지부(지부장 유병일) 한우국거리 117kg(390만 원 상당) △당진시지부(지부장 이재천) 한우국거리(양지 78kg, 잡뼈 234kg 등(390만 원 상당) △보령시지부(지부장 최윤근) 국거리와 사골로 구성한 한우세트 100박스(390만 원 상당) △서산시지부(지부장 박진희) 한우국거리와 불고기

81kg, 사골 142kg(390만 원 상당) △아산시지부(지부장 손경찬) 한우곰탕 950봉(390만 원 상당) △예산시지부(지부장 박건순) 한우국거리 114kg(390만 원 상당) △천안시지부(지부장 이규옥) 한우국거리 120kg(390만 원 상당) △태안군지부(지부장 현영주) 한우고기 166kg(500만 원 상당) 등의 사랑의 손길을 더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지회(지회장 정운섭)는 지난 1월 31일 전북도내 74개 사회복지시설, 약 4,980명의 시설이용자 및 입소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우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전라북도 시군지부에서도

나눔활동을 실천했는데, 1+한우불고기를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고창군지부(지부장 이경호) 86kg(300만 원 상당) △군산시지부(지부장 이영철) 114kg(400만 원 상당) △김제시지부(지부장 정기섭) 133kg(460만 원 상당) △남원시지부(지부장 안길찬) 97kg(340만 원 상당) △무주군지부(지부장 한동진) 115kg(400만 원 상당) △부안군지부(지부장 김형석) 74kg(260만 원 상당) △순창군지부(지부장 이윤섭) 75kg(260만 원 상당) △완주군지부(지부장 김영만) 133kg(460만 원 상당) △익산시지부(지부장 이하일) 131kg(460만 원 상당) △임실군지부(지부장 서충석) 117kg(400만 원 상당) △장수군지부(지부장 채수권) 40kg(140만 원 상당) △정읍시지부(지부장 나화주) 120kg(420만 원 상당) △진안군지부(지부장 이우식) 82kg(290만 원 상당) 등의 한우나눔 활동이 전개됐다.

전라남도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안규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한우불고기(1,730만 원 상당)를 전달하는 '한우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눔행사에서는 목포시청을 방문해 한우불고기(900만 원 상당)를

전달한 데 이어 광주광역시 남구청을 찾아 600만 원 상당의 한우불고기를 전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해남 가나안요양원을 방문해 한우불고기(23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광주전남도지회는 22개 시군지부에서도 일제히 설맞이 한우나눔 행사를 진행, 총 6,000만 원의 한우고기가 광주전라남도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됐다.

경상북도

대구경북도지회 영천시지부(지부장 최종효)는 한우불고기 정육 91kg 나눔 행사를 실시. 영천시 내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경상남도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강호경)는 설날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한우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부산경남도지회는 한우불고기 1,400kg(4,500만 원)을 경상남도의 17개 지역에 위치한 154개소의 복지시설에 각각 전달했다.



부산경남도지회 한우나눔에는

△거창군지부(지부장 최동윤) 93kg(300만 원 상당)
△고성군지부(지부장 최두소) 94kg(300만 원 상당)
△김해시지부(지부장 송태영) 90kg(300만 원 상당)
△남해군지부 102kg(330만 원 상당)
△밀양시지부(지부장 김성백) 93kg(300만 원 상당)
△사천시지부(지부장 이상훈) 94kg(300만 원 상당)
△산청군지부(지부장 권순록) 78kg(250만 원 상당)
△양산시지부(지부장 이채원) 31kg(100만 원 상당)
△의령군지부(지부장 안은달) 88kg(260만 원 상당)
△진주시지부(지부장 최용언) 92kg(295만 원 상당)
△창녕군지부(지부장 김두찬) 107kg(350만 원 상당)
△창원시지부(지부장 이용백) 102kg(300만 원 상당)
△통영시지부(지부장 김재호) 30kg(96만 원 상당)
△하동군지부(지부장 이영주) 75kg(240만 원 상당)
△함안군지부(지부장 홍수훈) 75kg(250만 원 상당)
△함양군지부(지부장 노우현) 78kg(250만 원 상당)
△합천군지부(지부장 최대원) 75kg(250만 원 상당)
등의 한우나눔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지회는 지난 12월 20일 한우국밥 나눔과 한우나눔 실천을 위해 각각 서부 노인복지관과 푸드뱅크를 방문, 한우국밥 450인분, 한우국거리 40kg(400만 원 상당)을 나눴다. 나눔행사에는 울산시 울주군 군수님과 지역 의원들이 참여해 한우협회에 대한 신뢰 구축과 홍보에 도움이 됐다.

제주도

제주도지회(지회장 안석찬)는 제주푸드뱅크를 통해 제주도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우잡빠로 한우나눔 행사를 실시. 제주도에 훈훈한 바람을 일으켰다. 🍷

3

‘한우자조금사업의 미래발전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자조금 사업 효율화와 한우산업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한우자조금이 건국대학교(경상학부, 연구책임자 정경수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한우자조금사업의 미래발전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우산업 구조변화 과정에서 한우자조금 사업이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했다.

연구진은 “소고기 시장 개방, FTA 확산 등으로 한우산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홍보촉진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한우자조금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며 “지난 13년간의 한우자조금 사업 경험을 돌아보고 또 개선방안을 찾아 앞으로 장기 발전 전략을 세움으로써 자조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아가 한우산업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사업 사업 효율화 장기 발전 로드맵〉

구분			제4기	
			2018년 9월 ~ 2019년 2월	2019년 3월 ~ 2020년 2월
사업 효율화 방안	소비홍보사업	소비홍보행사 다양화	기존 홍보행사 사업평가 보완	홍보행사사업 다양화 방안 수립
		차세대 홍보확대	차세대 대상 홍보전략 개발	
		저비용 장기광고전략	광고 콘텐츠 개선방안 수립·보완	
	교육컨설팅사업	사무국관리 강화방안	위탁사업 효율화방안 연구	기획조정실 신설
		소비자교육 정보사업 확대	소비자교육 정보사업 확대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미래전략사업	수출사업지원	수출시장(중국) 연구조사 및 기획	
		4차산업대비	4차산업혁명 대비 한우산업 대안 발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중장기 프로젝트 방안	
자조금 평가 및 환류		자조금 평가 및 환류	신뢰적인 한우자조금 평가 추진	

자조금 사업 한우 고급식품 포지셔닝에 기여

2005년 제1차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출하 두당 2만 원의 자조금 거출을 의결, 그렇게 2005년 5월부터 한우자조금 거출을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 13년간 전체 한우자조금 사업의 집행률은 평균 85.7%를 기록했는데, 2017년에는 91.2% 집행률로 한우자조금 설립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본 연구에서는 자조금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 ‘위탁사업 비중을 줄이고 사무국이 담당하는 자체사업 규모를 늘릴 것과 사무국 내 위탁사업 특별 관리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한우자조금의 주요 사업은 △소비홍보 △수급안정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 △조사연구 사업 등이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한우자조금의 이런 사업들은 한우가 수입소고기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과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것, 한우를 고급식품으로 포지셔닝하는 것 등에 기여했다.



한우농가 95% 자조금 사업 필요

본 연구에서 전국 100곳의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 기여도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는 자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84%는 한우자조금이 산업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우자조금 사업별 인지도, 중요도, 신뢰도, 만족도, 우선순위 등의 평가에서는 '소비홍보'가 첫 손에 꼽혔다. 응답자 중 자조금 사업내역을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 이에 보고서에서는 한우농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우자조금 미래 발전 방안을 위해 한우지도자, 한우자조금 사무국,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한우자조금의 역할은 '가격 안정화'와 '한우 가치 향상 및 소비 확대', '농가 권익 대변 및 소득 증대', '한우산업에 국가 개입 최소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에 대한 농가의 불만 사항으로는 편향적인 예산편성, 비가시적인 사업 활동 등이 제시됐다.

한우자조금 장기 발전 로드맵 제시

이번 연구에서는 한우자조금의 비전과 임무로 각각 '수입소고기와 무한경쟁 상황에 있는 한우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과 '한우산업이 한우고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시했다.

비전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으로는 △한우고기 우수성과 가치 제고 및 이에 대한 연구 개발 △한우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한우고기 수출시장 개발 △밀레니엄 세대 소비력과 소비행태에 맞는 한우고기 수요에 대비 △한우고기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과 우수성 지속적인 홍보 전략 수립 등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 △한우농가 경영안정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꼽았다. 거출금 납부자 범위 확대, 한우자조금 거출률 제고 등 한우자조금의 안정적 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한우자조금 조직 효율화 전략, 사업 효율화 전략 등 한우자조금 사업 전 분야에 대한 검토와 전략도 연구 보고서에 제시했다.

이런 발전방안을 기초로 2024년까지 한우자조금 장기발전 로드맵도 제시됐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이번 연구로 한우자조금 사업의 장·단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사업발전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한우자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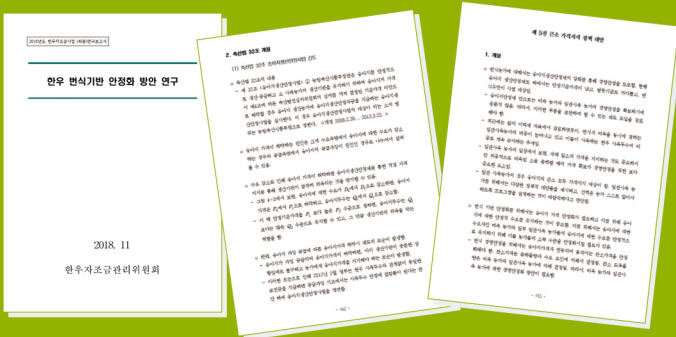
제5기

2020년 3월 ~ 2021년 2월	2021년 3월 ~ 2022년 2월	2022년 3월 ~ 2023년 2월	2023년 3월 ~ 2024년 2월
홍보행사사업 다양화		홍보행사사업 효율성 검토, 환류	
차세대 대상 특별 홍보 시행 및 보완			
일반적 저비용 광고전략 수립·시행			
위탁기관 관계 정립 및 위탁사업 재조정		위탁사업 모범 사례 발굴, 표창, 홍보	
소비자교육사업 확대	소비자행사 지원 확대	소비자교육 정보사업 평가 및 개선	
자조금 수출지원사업		한우 중국본토 수출 개시	
4차산업혁명 대비 한우 정책 제시		4차산업 자조금사업 시행	
한우산업 장기 정책 개발 자조금 예산 5~10% 연구개발 투자		자조금예산 10% 연구개발 투자	
한우자조금 평가 결과 효율적 홍보 한우자조금 평가 환류 체계 확립			



4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연구’ 발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큰소 가격지지 정책’ 도입 필요



*본 연구보고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이 경상대학교(연구책임자 전상곤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우 사육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급 관리 시스템 마련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번식농가 안정화 방안 제시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한 비육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 제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본 연구에서는 한우 번식기반뿐만 아니라 한우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과거와 달리 일관사육농가의 비중이 커지면서 번식농가뿐만 아니라 일관사육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비육농가들의 송아지 수요(구매)를 꾸준히 유지해 번식기반을 안정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우산업은 송아지 거래에서부터 큰소 출하까지의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만큼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해서는 번식농가뿐만 아니라 비육농가, 일관사육농가 등 한우농가 전체의 경영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급 안정화를 통한 산지가격 안정화’, ‘송아지 가격지지 정책 대안(번식농가)’, ‘큰소 가격지지 정책 대안(비육농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한우수급조절위원회가 제시한 목표 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간의 차이를 단계별로 나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송아지 가격지지 정책 대안으로는 축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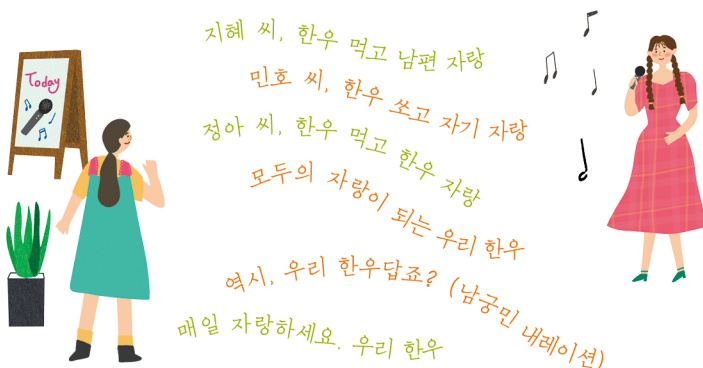
32조의 개정, 가임암소 두수를 기준으로 한 보전금 차등지원 상한선 재검토, 안정기준가격과 보전금한도액 현실화 및 재정 마련 방안 공식화, 100두 미만 규모 대상 사업시행,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 계약·탈퇴에 대한 제한 검토, 암소 혈통등록과 송아지 친자확인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큰소 가격지지 정책 대안으로는 비육우 조수입지지 프로그램 도입, 정부 주도의 큰소 가격지지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번식과 비육은 사육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번식 혹은 비육 기술이 뒤따르지 않는 일관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교육으로 번식과 비육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해 암소 번식률 향상과 비육우 등급 출현율 향상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5

신규 비즈링(무료 통화연결음) 런칭 2019년도 TV광고 카피와 일관된 메시지 전달

한우자조금이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경쾌한 가사를 더해 완성한
'2019년 신규 비즈링'을 선보였다.

이번 비즈링은 2018년 라디오 CM 송의 음을 그대로 활용해 친숙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멜로디라인을 보다 경쾌하게 바꾸고 가사를 개사해
새로움을 추구했다. 여기에 2019년 한우 홍보대사인 남궁민 씨의
내레이션까지 더해지면서 비즈링이 더욱 특별해졌다.



한우자조금은 2019년도 TV광고 카피와 부합하는
메시지를 가사에 담아 신규 음원을 제작했다.

한우자조금이 2019 한우 홍보대사인 배우 남궁민
씨를 모델로 선보인 2019년 한우자조금 캠페인
광고는 '인생, 맛있어진다. 우리 한우'라는 슬로건
아래, '평범한 일상에서도 한우가 있으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선보인 비즈링이 2018년 한우자조금
슬로건인 '일상의 행복 한우'를 표현하기
위해 가사에 월요일 기분 좋게, 금요일 힘이
나게 등 사람들의 긍정 에너지를 높여주는

한우의 이미지를 가사에 담았다면, 이번 신규
비즈링은 2019년 캠페인광고 슬로건인 '인생,
맛있어진다. 우리 한우'와 같은 맥락에서 한우
먹고 남편 자랑, 한우 쏘고 자기 자랑, 한우 먹고
한우 자랑 등 '우리 한우'와 함께하면 '평범한
일상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신규 비즈링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 알림·홍보-
홍보자료-한우송 듣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간편한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우자조금에서는 이번 신규 음원 외에도
한우먹고 힘내요, NEW한우송, 인생의 좋은날,
오나의 한우, 한우가 기기막혀 등 10여개의 한우
비즈링을 제공하고 있다. 전화 번호, 통신사 등을
변경하면 비즈링이 자동 해지되므로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신규 비즈링 런칭 기념으로
3월 11일 부터 4월 30일까지 비즈링 신규 가입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나 QR코드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는데, 응모자 중 추첨으로
5만 원 상당의 한우정육세트(2명)와 5만 원 상당의
한우육포세트(2명), 한우불고기콤보(10명)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



1

2019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부회장 박승술·감사 김학수’ 선출

전국한우협회는 2월 26일 조치원 소재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2019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홍길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300만 두 이상 예상되므로 미경산우 사업에 모든 농가가 참여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협회 OEM 사료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지부의 동참이 절실하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비육우 가격 안정제를 마련해 한우가 쌀과 함께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앙회 부회장·감사 선출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및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승인하고, 중앙회 부회장과 감사직에 단독 출마한

▽박승술 전 전국한우협회 전라북도지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부회장으로 김학수 전 강화군지부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감사로 각각 선출됐다.



박승술 전 전북도지회장과 김학수 전 강화군지부장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박승술 부회장은 정읍시 지부장(2004년~2006년·2016년~2017년)과 전라북도지회장(2006년~2010년)을 역임했으며, 한국종축개량협회 감사(2007년~2013년)와 축산과학원 한우개량분과위원장(2011년~2012년)으로 활동하며 농가 조직화를 통한 산업 안정, 개량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 등 농민운동과 한우개량사업의 큰 줄기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축산분과위원장(2015년~2018년)과 함께 현재까지 전국한우협회 전라북도지회 자문위원으로 일해왔다.

박승술 부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한우산업 보호와 발전, 한우농가의 권익 향상은 그 누구도 대신하지 않는다”면서 “주변 탓, 남 탓, 여건 탓하지 말고 한우산업 보호와 발전, 한우농가의 살길과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학수 감사는 부천축협 비상임감사(1993년~2008년)와 함께 인천 강화군지부장(2015년~현재) 및 한우자조금 대의원(2017년~현재) 등을 역임했다.

김학수 감사는 “한우산업과 발전과 농가들의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오다 협회의 선제적 한우 수급조절 사업에 크게 공감해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자 감사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어떤 조직이건 투명한 운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안정된 한우산업·함께하는 민족산업’ 위해

이날 전국한우협회는 2019년 사업목표를 ‘안정된 한우산업·함께하는 민족산업’에 두고 미경산우 비육으로 한우가격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OEM 사료 확대 공급,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한우협회 임원과 대의원들은 △한우농가의 소득 안정장치와 한우 값 폭락 예방 대책 마련 △사료비 절감 방안 제시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제도 개선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한우협회 OEM 사료 이용과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동참 △청결한 환경 유지 및 사회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장관상은 김학수 전 강화군지부장, 김명길 음성군지부장, 김경수 이레농장 대표가 받았다. 우수지부에는 경기 평택시지부, 강원 춘천시지부, 충북 증평군지부, 충남 세종시지부, 전북 남원시지부, 전남 나주시지부, 경북 경산시지부·포항시지부, 경남 창원군지부, 울산 남부지부가 수상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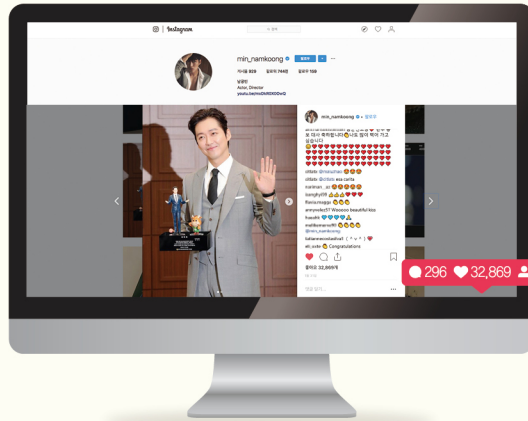


인플루언서를 만나다
(Influencer, Influence+er)

SNS에서
핫(hot)한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



대도서관, 이사배, 캐리언니, 뽀빠,
영국남자, 슈기를 아시나요?
이름도 낯선 이들이 요즘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서 수만에서 수백만의
팔로워와 구독자를 보유한 'SNS
스타'로, 대중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란
의미에서 '인플루언서'라 불립니다.
요즘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언서들은 우리 생활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 솔직한 사용 경험 등을 바탕으로 팔로워, 구독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충성도가 높은 팔로워와 구독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가성비 높은 마케팅 방법이란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인플루언스 마케팅은 광고주와의 계약 없이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작성해 영향력을 제공한 만큼 광고비를 받거나 광고주와의 계약으로 자신의 콘텐츠에 상품을 노출하고 직접 체험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게재하는 형태 등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짧은 기간만 운영하는 팝업스토어를 열거나 온라인 쇼피נג·홈쇼핑의 쇼호스트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SNS 자체에 쇼핑 기능이 추가되면서 SNS 커머스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가
있나요?**

컨설팅 업체인 브라이트로컬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그들이 팔로잉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제품 리뷰를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PR&마케팅 컨설팅 기업 합사우트가 발간한 '콘텐츠 매터스 2018'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보고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세계로 가는 한우**

한우자조금도 파워블로거, 유튜브 스타 등의 인플루언서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한우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홍콩의 유명 유튜버를 초청해 한우의 사육환경, 사양관리 방법 등을 소개, 홍콩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우를 잘 알고 한우와 잘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들과 적극 협업해, 한우가 대중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2019년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한 배우 남궁민 씨가, 인기 배우이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73만 명이나 되는 '인플루언서'란 사실을, 지난 1월 31일 남궁민 씨가 올린 한우 홍보대사 위촉식 사진은 한 시간도 안 돼 '좋아요' 5,000회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남궁민 씨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

건강한 해외여행 위해 이것만은 꼭! 해외감염병 예방하기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등 챙기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나타나면 '1339'에 신고하기

최근 5년간 해외여행객이 꾸준히 증가, 2018년에만 약 4,900만 명이 입국했다. 그중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을 동반해 입국한 사람이 약 26만 명.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병 신고 진수는 672건으로, 이는 2017년(529건) 대비 27% 증가한 것이다. 해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195명, 29%), 세균성이질(162명, 24%), 장티푸스(100명, 15%), 말라리아(75명, 11%) 등의 순이었으며, 해외유입 지역은 필리핀·베트남·태국 등 아시아(88%), 아프리카(7%)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해외질병)에서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예방약·예방물품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에는 음식 섭취에 유의하고, 긴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품을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동물 접촉도 피해야 한다.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개인위생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표 참고>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했다면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입국한 후** 설사, 발진,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상담받고,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별 예방수칙

홍역

- 1968년 이후 출생한 성인(특히 20~0대는 면역 증거* 없으면, 출국 전 최소 1회 홍역 예방접종 권고)
- 6~11개월 영아 출국 전 1회 예방접종 권고
- 여행 중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준수

*면역 증거: ①홍역을 앓은 적이 있다 ②홍역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③홍역 항체 검사 양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장티푸스·세균성이질 등)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 과일·채소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모기매개감염병

(뎅기열·지카바이러스감염증·말라리아 등)

- 모기장, 모기 기피제 등 모기 퇴치 제품과 살충제 사용
- 밝은색의 긴팔과 긴바지 착용
- 방충망과 냉방시설 설치된 숙소 이용, 살충제 사용
- 발열, 두통, 오한 등 의심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 방문·진료
- 발생지역 여행 후 최소 1개월은 현열하지 않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메르스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 낙타 접촉 자제
- 의하지 않은 낙타고기 및 생낙타우 섭취 금지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 2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비(%)		
					2月	2月(A)	1月(B)	2月(C)	C/A	C/B	
도축두수(두)		737,474	742,536	736,363	42,465	60,171	106,623	35,138	-41.6	-67.0	
경매두수(두)		395,253	401,591	399,763	22,414	31,057	54,953	19,005	-38.8	-65.4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8,116	16,719	17,772	16,374	17,701	17,705	17,752	0.3	0.3
	거세우		18,941	17,710	18,735	17,011	18,495	18,552	18,519	0.1	-0.2
	비거세우		15,263	12,108	12,813	11,867	12,382	14,188	13,580	9.7	-4.3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5,809	5,404	5,659	5,450	5,575	5,689	5,723	2.7	0.6
	송아지	암	2,902	2,919	3,130	2,540	2,963	3,086	3,092	4.4	0.2
		수	3,583	3,572	3,857	3,098	3,523	3,656	3,687	4.7	0.8
불고기(1등급, kg/원)		45,755	46,219	43,773	44,072	46,479	43,144	43,371	-6.7	0.5	
등심(1등급, kg/원)		78,683	79,663	81,551	77,656	81,222	80,882	79,747	-1.8	-1.4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2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 2월 한우육질 등급별 도매가격

* 단위: 원/kg

등급	거세	암소	수소	평균
1++	20,883	21,901	—	20,971
1+	19,303	19,482	—	19,339
1	17,571	17,501	16,310	17,546
2	14,655	14,776	16,436	14,733
3	11,863	11,702	12,796	11,763

* 기준일: 2월 1일~2월 28일

웹진으로 만나는 한우자조금

한우 비즈링

무료통화연결음

한우자조금에서 비즈링(컬러링)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 사이트 www.hanwooboard.or.kr에 방문하셔서

메인화면 '알림·홍보' ▶ '홍보자료' ▶ '한우송 듣기' ▶ '비즈링 신청'

▶ **신청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차후 비즈링 해지는 고객센터 1544-320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번호·통신사 변경 시 비즈링이 자동 해지되오니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신청 부탁드립니다.

듣기 좋고
귀여운
비즈링~
친구·지인들이
좋아해요~



한우자조금 소식지를 웹진으로 만나는 방법!

한우자조금 소식을 아래 4가지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 웹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네이버나 다음 포털 주소창에 한우자조금 웹진 주소(www.hanwoonews.com)를 입력하세요.

세 번째 방법!

QR코드를 스캔하세요. QR코드 스캔 방법은 네이버 창을 연 후 검색창 옆의 카메라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에서 소식지 배너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 화면에 한우자조금 소식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세요!

안드로이드

- 1 위 방법대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2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3 '더보기'에서 '+ 홈 화면 추가'를 누르면 아이콘 생성 완료



아이폰

- 1 위 방법대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2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3 '더보기'에서 Safari로 열기를 클릭
- 4 Safari의 하단 '공유'를 클릭한 후 '+ 홈 화면 추가'를 클릭하면 아이콘 생성 완료

푸짐한 선물이 팡팡!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응모방법

옆의 방법에 따라 핸드폰에 웹진 <한우자조금> 아이콘을 생성한 뒤,
웹진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한우 응원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아래의 정보란에 정보를 남겨주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19년 3월 29일(금)까지

당첨자발표 2019년 4월호 한우자조금 소식지 및 개별 연락
문의 02-324-6852

지난호 당첨자

한우육포

유정현, 정상호

한우곰탕세트

김정민, 김창열, 박종미, 유재욱, 장동학, 정경석, 함은지

한우불고기버거

김아름, 김예성, 성경석, 손은총, 이정님, 임도현, 장길자,
전수정, 최정순, 한영미



모두가 좋아하는 영양만점 간식

〈한우육포〉 2명



뜨겁고 든든한

〈한우곰탕세트〉 7명



두툽한 한우패티가 버거 속에

〈한우불고기버거〉 10명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협력사인 디자인인화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2019년 1차 한우자조금 대의원 총회	
						
10	11	12	13	14	15 	16
		2019년 1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19년 2차 한우자조금 대의원 총회		
31						